

밀알

By Jane DeRose-Bamman, OFS, 국가형제회 회장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범,

By Francine Gikow, OFS

15 년에 대한 성찰:

OFS 를 섬길 기회에 대한 감사

By Jerome Wolbert, OFM

2026 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의 해

Layna Maher OFS

성 프란치스코: 젊은 세대의 성인

Kathleen Molaro, OFS

청년 프란치스칸 위원회 회장



미국 전역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이
5 년마다 정말 특별한 행사에
모입니다: 우리의 퀸퀴니얼
총회로, 기도와 형제애, 그리고

밀알

By Jane DeRose-Bamman, OFS, 국가형제회 회장

지난 3년 동안 저는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향으로 돌아가셨고, 2025년에는 어머니께서도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93년의 긴 생을 사셨고, 성 프란치스코는 약 45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히려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응시하도록 이끄는 은총의 초대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복음서 12,24)

2021년, 부모님께서 점점 더 도움을 필요로 하시게 되었고, 저는 형제자매들과 번갈아 가며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돌봄의 부르심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저 자신을 비워 내는 작은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남편 브라이언과 가정, 그리고 일터를 떠나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저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놓는 일에 불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모님께서 여섯 자녀와 그 가족들을 위해 평생 바치신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제가 드린 것은 참으로 작은 응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의 도움으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을 통해 받은 은총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부모님을 이전보다 더 깊고 새로운 차원에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식습관과 기호, 즐겨 보시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기도의 삶의 모습까지 세심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800년 전에 사셨기에 저는 물론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걸었던 길—아시시와 라 베르나—을 걸으며, 그의 기도와 그리스도를 따랐던 삶에 대한 다른 이들의 증언을 묵상함으로써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희생’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것을 결코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 분—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부활입니다.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 바로 밀알의 신비입니다. 고통은 있지만, 그 열매는 풍성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해 보며, 저는 제 안에 어떤 씨앗들이 심어졌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 결코 포기하지 말 것, 믿음은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 규칙적인 삶의 중요성,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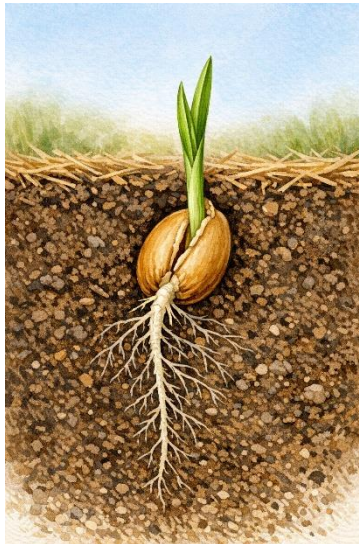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들: 우리는 언제나 더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삶은 짧기에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는 것,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식탁은 언제나 더 많은 이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결코 늦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 학위를 취득하는 일처럼).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배운 것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일에 협력하는 존재라는 것, 복음의 기쁨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 그리고 육적인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프란치스코인으로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주 실패한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범,

By Francine Gikow, OFS

제가 처음으로 재속 프란치스코를 만난 것은 안나라는 온화한 영혼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녀가 하느님과 관계를 “친밀함”이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이미 그녀가 지니고 있는 그 관계를 저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안나는 저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처럼 겸손과 단순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프란치스코를 살아갔습니다. 삶 속에서 분명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기쁨과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영적 삶의 뿌리는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와 같았습니다. 프라하의 아녜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성녀 클라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눈물 흘린다면,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함께 죽는다면,
성인들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처소를 그분과 함께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1)*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존재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기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으니,
당신도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 성녀 클라라, 프라하의 아녜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 15 절**

제 프란치스코 친구 안나 역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 풍요롭고 기쁜 사랑은 그녀의 친절함과 운유함, 그리고 연민의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왔습니다. 안나는 저에게 모범이 되었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속 프란치스코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자신의 유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의 모범이자 본보기, 그리고 거울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 또한 세상 속 사람들에게 거울이자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20)

사랑은 프란치스코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유산입니다. 이 거룩한 성 프란치스코의 해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의 삶을 기쁘게 기념합니다. 성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14:1)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주 우리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15 년에 대한 성찰:
OFS 를 섬길 기회에 대한 감사
By Jerome Wolbert, OFM

저의 프란치스칸 성소는 재속회(OFS)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 년에 관구 대표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했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후 두 번째 소임이었고, 사람으로서는 중년이었지만 수도자로서는 아직 젊은 시기였습니다. 이 봉사는 저에게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를 성장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여러 순간에 저는 지도력 안에서 저와 함께 걸어준 분들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지원으로 제 인연과 관계는 더욱 넓어졌고, 결국 지금의 관구 OFS 애니메이터와 국가 영적 보조자라는 직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교회법과 재속 프란치스칸회의 고유법을 포함한 법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우리의 규정과 교회법 조항 안에 담긴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수도사들에게 재속회원들이 자신의 형제회를 위해 영적 보좌로 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이후, 그들이 재속회원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커진 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법 안에 담긴 가치들이 도움이 되었던 여러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관련된 이들에게 더 개인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회법 강의에서 처음 들었던 가르침을 다시금 확신하게 합니다. 곧, 교회법은 교회의 신학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론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로 모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적절한 통보'와 같은 원칙들은 일정한 책임성을 요구하며, 교회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국가 영적 보조자 회의는 새로운 국제 회헌을 반영하여 활동 중단(비활성화)과 어려움을 겪는 형제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다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적 보조자 지침서의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동료 수도사들이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것은, 지난 15 년간 미국에서 여러분의 수도회를 섬기며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회칙은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자율적인 단체로 설명합니다. 즉, 여러분은 자체 회칙을 제정하고 스스로 재속회를 운영합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단체와 마찬가지로 감독과 영적 보조(CIC 303)를 받습니다.

해야 할 모든 일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 지도자와 봉사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과 지도 방식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는 5 월 로마로 이동하여 동방교회에서 새로운 소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맡아온 어떤 봉사나 사목과도 매우 다른 책임이 될 것입니다.

OFS 봉사를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우리의 회칙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한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까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직관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는 앞으로 여러분 세대의 지도자들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며, 또한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봉사의 차원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여러분의 형제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복음을 더욱 잘 살아내고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

2026 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의 해

Layna Maher OFS

전국 양성 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신 *트란시투스(Transitus)* 800 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교황님께서서는 2026 년을 '성 프란치스코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근원적인 은총으로의 회귀

모든 성소의 시작점에는 은총의 순간, 즉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그 전환점은 나병 환자를 꺼안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세상에 머물면서 프란치스코의 정신으로 복음을 살아가라는 조용한 부르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들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계시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성소의 핵심입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4 조는 우리의 삶이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수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열정은 식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실패를 딛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평생에 걸친 여정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완성된 사람이 아닌, 끊임없이 회개하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회개하는 이들을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삶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갈등 속에서의 인내, 일터에서의 성실함, 판단할 때의 자비, 그리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통해 매일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해*를 맞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 우리는 희생보다 안락함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편리함에 익숙해져 우리의 신앙이 약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교회를 재건하여라”

십자가 앞에서 프란치스코는 *내 교회를 재건하여라* 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경당을 수리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진정한 사명은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남으로써가 아니라, 세상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킴으로써 그 사명에 동참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제자들에게 *온유하고 평화로우며, 겸손하고 양순하며, 겸허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정신, 곧 *작음(minoritas)*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치입니다. 모든 형제회가 평화와 피조물 보호,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재건되는 방식입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기

생의 마지막 순간, 프란치스코는 극심한 고통과 실명의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는 ‘피조물의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까지 겸손과 감사를 바쳤습니다.

2026 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집착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시네 프로프리오(sine proprio,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의 깊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올해는 교회 전체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찰과 공동체적 쇄신, 그리고 복음적 삶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프란치스코의 글들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합시다. 단순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겸손하게 봉사할 은총을 청합시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00 년이 지난 지금도 프란치스코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살라고, 부서진 곳을 고치라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젊은 세대의 성인

Kathleen Molaro, OFS

청년 프란치스코 위원회 회장

프란치스코 성인의 해 선포에 응답하여, 바티칸 뉴스 기고가인 마렉 베레사 신부는 교황청 내사원 이사 크시슈토프 니키엘 주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성대한 희년을 보낸 데 이어 또다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해라는 특별한 초대를 맞이한 지금, “이 시간이 진부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하였습니다.

니키엘 주교는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성화는 벅차고, 지치게 하며, 심지어는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닐 것이라 답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응답을 더 깊게 하는 것을 권합니다.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해는 특별한 영적 효과들로 가득 찬 또 하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열정에서 깊은 성숙으로 조용히 건너가는 시간이 되어 합니다.”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6-01/year-saint-francis-indulgence-assisi.html>

올해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 깊은 변화와 회개를 경험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받는 성인입니다. 최근 새크라멘토 교구의 뉴먼 센터 봉사자들을 다룬 기사(The Future of the Church is Today, *Catholic Herald*, 2026년 3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프란치스코처럼, 젊은이들은 목적 있는 삶, 마음챙김, 진정성, 실천을 열망한다고 자주 표현합니다. Chico 뉴먼 센터의 마리 앤툰스는 어떤 학생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삶의 철학을 지녔던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게도 깊은 신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기쁘게 죽습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에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을 실천했고, 그 모습은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와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와 모범 역시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새크라멘토 뉴먼 센터의 조 존스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목적의 시대를 원합니다”라면서, 편리함보다 목적을 추구하며 더 큰 것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의 노력을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미 보았던 아래 위원회의 발췌문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 주교회의는 빛의 아들딸들(Sons and Daughters of Light): 젊은 성인 사목을 위한 사목 계획에서 “교회는 젊은이들의 영적 갈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합니다. 응답은 “교회는 각 젊은이가 성화, 공동체, 봉사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에 기초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만남(Encounter) – 현존(Presence) – 기도(Prayer) – 영감(Inspiration) – 증거(Witness) – 사랑(Love)을 통해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특별한 해를 기념하며 자선 활동, 기도 모임, 피정,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한 다양한 기념 행사에 젊은이들을 함께 초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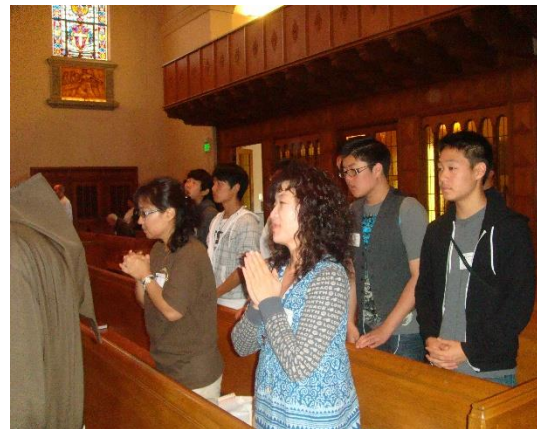
프란치스칸 가족 협의회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황 레오 14 세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건하고, 희망에 흔들림이 없으며,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에 불타올랐던 이 성인의 모범과 영적 유산이 모든 이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과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과 행동을 믿음과 기도로 받아들이고 비추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어,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창조물 감사



함께 기도



함께 행동



미국 전역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이 5년마다 정말 특별한 행사에 모입니다: 우리의 퀸키니얼 총회로, 기도와 형제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성소의 기쁨에 뿌리를 둔 전국적인 가족 모임입니다. 올해 우리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켄터키주 Lexington에 있는 그리핀 게이트 메리어트에서 제 21회 퀸키니얼 총회를 기념할 것입니다(Q2026). 이 모임은 특히 은혜가 가득한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프란치스코회 수도 가족이 성 프란치스코의 회년과 그의 지상 생애 마지막 해를 기념하는 800주년을 계속 축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퀸키니얼 회의는 단순한 학술대회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회칙 제 6조의 살아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거와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우리는 지역 일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프란치스코 가족 속으로 몸을 맡기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친교를 강화하며, 우리의 성소의 기쁨을 다시 발견합니다.

퀸키니얼은 풍부하고 세심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국 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안 일정은 형성, 기도, 축하, 그리고 공동체 형성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참가자들은 각기 날마다 복음을 사는 삶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조 연설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전체 모임의 중심이 됩니다.

Q에서 당신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퀸키니얼 모임은 만남의 순간입니다 – 그리스도와와의 만남, 서로와의 만남, 그리고 재속회의 더 넓은 사명과과의 만남입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이 모일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성소는 고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애, 교제, 그리고 공동의 사명 안에서 살아야 함을 기억합니다.

퀸키니얼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 MESSAGE FROM THE Q PLANNING COMMITTEE

- 기도, 전례, 그리고 공동 성찰을 통한 성소 갱신
- 모든 지역에서 온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형제애가 깊어짐
- 연사, 워크숍, 창의적인 제공으로부터 얻는 새로운 영감
- 미국에서 OFS의 삶과 사명에 대한 국가적 관점
- 희년 동안 우리의 프란치스코 정체성을 기념하는 즐거운 축하

많은 사람들에게 퀸키니얼 기념행사는 프란치스코 수도 여정에서 이정표가 됩니다 – 성소가 더 분명해지고, 기쁨이 더 깊어지며, 소속감이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하도록 초대받습니다 – 복음적인 삶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Q2026은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새로 서원했던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든, 당신의 존재는 우리 전체 국가 형제회에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 안에서 새로워질 준비가 된 마음으로, 열려 있는 마음으로 Lexington에 모입니다. 우리의 성소를 축하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며, 사명을 위해 새로워진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총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과 함께 Q2026에 참여하여 프란치스코의 부활절을 기념할 계획을 세우세요.